

이렇게 들었다

사이버 범죄

악행은 결국 제 몸 파괴

■선악의 행위는 제 마음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화복(禍福)이 사람 탓으로 생김은, 마치 그림자가 형태를 좇고 산울림이 소리에 응하는 것 같아서, 계행과 덕은 저절로 응하게 되어 있다. <아난분별경>

■온갖 중생이 지은 행위는 백 겁을 지나도 없어지지 아니하여, 인연이 결합되는 때에 가서는 응당 과보를 스스로 받아야 하느니라. <광명동자인명경>

우리 나라 사이버 범죄가 3년 간 무려 1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인터넷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서며 사이버 범죄 발생이 지난해 1693건으로 97년 123건보다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설문 조사한 '사이버 공간의 범죄피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10명중 7명 이상이 사이버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통계가 나왔다. 사이버 범죄 유형으로는 △스팸 메일 29.7% △컴퓨터 바이러스 21.9% △인신공격·언어폭력·협박 21.7% △사이버 성희롱·성폭행 11.5%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이버 범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번 발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함을 반증한다. 범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의 흐름은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해 무감각한 것이 사실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의 그늘에서 사기, 해킹, 사제 폭탄제조, 자살사이트 운영, 마약거래, 음란물유통 등 인터넷의 폐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자신의 행동이 범죄인 줄 모르고 단순히 호기심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아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명쾌한 법 집행을 못하는 등 대처방안도 미흡하다. 사이버상의 비밀보장과 익명성을 이용하여 언어 성폭력 등을 행하는 사이버 범죄는 정보화시대에 적절해야 할 과제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설했다. 이 말씀은 항상 자기에게 견주어 생활하여 남에게 나쁜 말과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이버 폭력으로 남을 해치려는 자는 자신의 만족을 얻을지라도 뒷세상의 인락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불법의 이치이다.

사이버 범죄에 처벌 근거를 법제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개개인의 윤리의식이다. 규제에 앞서 사이버세계의 체제적이고 포괄적인 윤리규범확립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법구경>에 "악한 행위는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지만 도리어 제 몸을 파괴한다. 쇠에서 녹이 생겨나 도리어 그 몸(쇠 자체)을 찌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 있다. 사이버 범죄는 결국 자신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김원우 기자(wkim@buddhapia.com)

광신이 부른 어처구니없는 휘발

특별기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하기가 불길한 예상이 없지는 않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 회교단체인 탈레반(Taliban)이 집권하면서부터 그런 감새가 보였다. 여학교를 폐쇄한다든지, 회교식 처벌을 부활한다든지 할 때부터 그랬다. 그런데 마침내 이 정권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자기 나라의 '도덕'을 황폐하게 한다면서 불상파괴를 명령했다. 이미 가즈니, 헤라트, 잡탈마드 등 수도사에서 불상 파괴가 시작되었고, 지난 8, 9일에는 드디어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일컫는 바미안 마애석불 2좌마저 폭파시키고 말았다.

직접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이슬람이 불교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것이다.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를 승인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 일을 그저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종교적 편견이 나뉘는 일이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반문화적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종교적 '독선'이다.

무릇 '독실한 신앙, 또는 돈독한 신심'의 경지에 이르려는 것은 종교인의 이상이다. 종교인이자면 자기의 신앙을 마땅



정진홍 교수
서울대 · 종교학

히 그렇게 지나야 한다. 어떤 열목도 없이 그 신앙을 '순수'하게 지나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순수에의 추구는 '정통'을 주장하면서 자기와 다른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하게 한다. 마침내 그러한 태도는 모든 인식이나 판단을 자기를 준거로 하여 행하면서 자기만의 정당성 안에 머무는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이에 이르면 그 돈독함은 자연스럽게 배타나 독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서서히 '일상적'인 정서를 잃어버리고 마침내 '광기나 광신'

으로밖에 묘사할 수 없는 행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돈독함은 이미 자신 안에 광신을 배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들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승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이른바 '종교적 현실'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비단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슬람과 불교간의 문제도 아니다. 모든 종교가 생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의 '작은' 돌출일 뿐이다. 온 세계의 비난에 대하여 그 정권이 항변하고 있는 내용은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 경청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실들을 담고 있다. 유네스코 대표가 파괴의 중지를 호소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1991년 힌두교도가 인도의 이슬람 바브리 사원을 파괴했을 때 세계는 단 한마디도 발언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사원을 점령했을 때도 아무 소리가 없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염려하는 소리를 문화 일반을 제외하고는 불교 아닌 다른 종교로부터는 들을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스리랑카에서 벌어지는 신할레족과 타밀족간의 살육이 종교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 불교가 어떤 발언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없다. 슬픈 일이다.

자칫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이러한 발언은 매우 조심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살펴야 한다. 종교적 광기는 모든 종교의 잠재적 가능성이다. 그것을 간과한다면 '바미안 석불'의 파괴는 끝내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미안 대불' 완전파괴...지구촌 '경악'

유엔·유네스코 중지 촉구
비웃듯 반문화적 폭거
"탈레반 정권 편협"
이슬람 국가들도 비난

세계적 문화유산인 바미안 대불'이 완전 파괴된 것으로 13일 최종 확인됐다. 또 바미안 석불 파괴 2주일 전에 또다른 불교 유적지인 가즈니 유적도 파괴된 것으로 밝혀졌다.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13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바미안의 고대 석불들을 이미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CNN 방송은 바미안 석불이 폭파되는 장면을 13일 공개했다. 관계자들은 이 대불뿐만 아니라 바미안 계곡 근처 절벽의 수천개 인공동굴 속 불상군들도 파괴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AP통신은 같은 날 지난 2월 중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남서쪽에 있는 가즈니 유적을 파괴했다는 탈레반 고위관리의 말을 전했다.

이번 바미안 석불파괴는 어떤 이유에서든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무차별 파괴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탈레반의 행위는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타종교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파괴한 행위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바미안 석불 파괴는 '반달리즘(vandalism·문화 예술 파괴행위)'의 차원을 뛰어넘은 '반문화적 폭거'라는 점에서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다.

●배경 및 과정-바미안 석불 파괴는 아프가니스탄 집권세력인 탈레반의 최고지도자 모하메드 오마르가 2월27일 모든 불상들을 이슬람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고 이를 파괴하라는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오마르는 포고문에서 "신은 유일하기 때문에 형상을 신앙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 불상은 지금부터 신앙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 이후 유네스코는 물론 유엔 189개 회원국이 불상 파괴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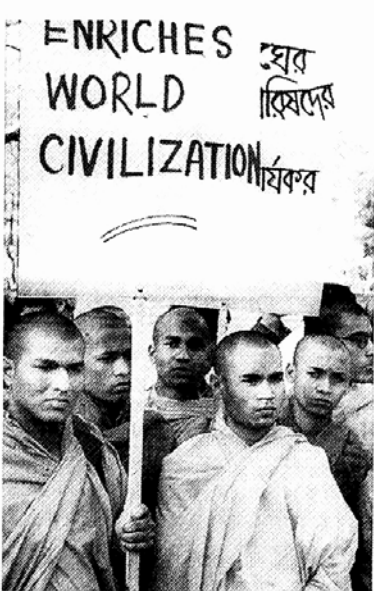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이집트, 터키, 파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들도 탈레반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탈레반 정권은 이같은 세계의 비난여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2일 바미안 석불의 머리와 다리 부분을 파괴한 데 이어 12일 다이내마이트를 이용해 완전 파괴했다.

●탈레반 정권의 실제-오랜 내전으로 혼란을 겪던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군사정권이 집권한 것은 1996년. 그러나 테러수출국으로 낙인찍히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교조적으로 내세우며 불상파괴와 여성들의 교육을 금지해왔다.

탈레반 정권이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편협하고 배타적인 종교집단으로 낙인찍힌 것은 탈레반 정권의 행위가 이슬람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탈레반을 유일하게 국가로 승인하고 있는 파키스탄조차도 이번 행위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코란(이슬람 경전)'이 다른 신앙도 수용하고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탈레반 정권의 이슬람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탈레반의 편협성과 배타성-이번 사태는 편협한 광신자들의 타종교 공격행위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파이슬람 우상과



◇방글라데시 스님들이 14일 다카에서 탈레반의 불상파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싸우겠다"는 탈레반 지도자 오마르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을 파괴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탈레반의 편협성과 배타성은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어떤 가치든 자신들의 종교에 앞설 수 없으며, 파괴대상으로 삼는다. 세상에서 유일한 가치는 오직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뿐인 것이다.

타인의 기본적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한 '다름'과 '다양함'을 용인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와 종교의 기본양식이다. 그런 점에서 타인의 종교적 권리를 훼손하는 탈레반의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바미안 석불은?

세계 최대 53m 입불상
간다라 불교미술 '대표작'

바미안 석불은 세계 최대의 입불상이라는 것만으로도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게다가 웅장한 간다라 불교미술의 절정기에 만들어진 대표적 불상이다.

'간다라'는 인더스강 지류인 카블강 하류에 자리잡은 평원지역으로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일부 지역에 해당한다. 기원 전 · 후에서 5세기경까지 동 · 서 문명이 융화된 불교문명이 찬란하게 꽃핀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바미안은 인도에 접해 있을 뿐 아니라 이란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 세계 최대 불교유적지 중 하나다. 산 절벽에 약 3km에 걸쳐 2000여 개의 석굴이 흩뿌려졌는데 그 중 유명한 것이 바로 동대불(37m)과 서대불(53m) 등 대형불상이 있는 석굴이다.

동국대 문명대(불교미술) 교수는 "바미안 석불은 세련미가 풍부하고 신체의 양감 표현이 뚜렷한 점으로 볼 때 간다라 미술의 절정기인 3~4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미안 석불은 주변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영향 또한 크다. 이 석불양식은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의 키질 석굴과 중국의 둔황·운강·용문 석굴로 이어졌고 다시 우리나라 초기불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문 교수는 "1960년대 서울 독서에서 발견된 금동불좌상 등 5세기경 만들어진 초기불상들은 바미안 석불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들"이라며 "8세기 초 조성된 감산사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도 그 변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 의 문

지난해 11월 23일 제79회 정기중앙총회에서 선출된 총무원장 송종연 스님의 자격과 제척사유 등을 문제 삼아 2001년 2월 13일 제 80회 임시중앙총회에서 총무원장 당선취소를 의결하고, 김법장 스님을 새로운 총무원장으로 선출함으로써 1종단 2총무원장이라는 전대미문의 최악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 경남의 태고종도들은 이러한 종단 내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참담한 심정과 구종의 비장한 각오로 제 25회 경남교구 임시지방총회를 긴급히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 첫 째 : 우리는 제 79회 정기중앙총회의 결의사항을 존중, 적극 지지 한다.
- 둘째 째 : 우리는 제 80회 임시중앙총회를 불법총회로 간주하며 결의사항을 인정하지 않는다.
- 셋 째 : 우리는 송종연 총무원장의 거취문제는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임시중앙총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 넷 째 : 우리는 불법적인 제80회 임시중앙총회를 강행한 종도들을 의법 조치하기를 촉구한다.
- 다섯째 : 우리는 아집과 편견에 치우쳐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일체 용납하지 않으며 파사현정의 길을 택할 것이다.
- 여섯째 : 우리는 종권아육의 일체행위를 배격하고, 정당한 법절차에 의한 결의를 존중 지지하며 경남교구종도들은 일치단합하여 구종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결의한다.

불기 2545년 (2001) 3월 13일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지방총의회 의장 권 무애 및 지방총회의원 일동

제25회 경남교구 임시지방총회의 결의를 적극 지지한다.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총무원장 이광진.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사정위원장 김지각